

헤럴드 기어 변호사

HAROLD J. GERR
Attorneys at Law

자동차 혹은 트럭사고,
척추나 디스크에 관련 된 사고,
공사현장 사고, 뺨가 부러진 사고,
범죄로 희생양이 된 사고,
각종 상해, 사망사고

1-877-249-4600

47 Raritan Ave. Highland Park. NJ

은빛 요양원

풍요로운 노후의 삶을 도와드립니다



1호점 중부 뉴저지 Eatontown
2호점 서부 뉴저지 Pittstown

풍부한 경험과 수준 높은 전문가 서비스
가정 같은 또 하나의 생활공간
간호, 간병, 전문 재활치료
한국문화 정서와 여가 활동

한국어 직통

732.770.0609

www.은빛요양원.com

16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



준 풀턴 부동산

908-295-7053

준 원출 풀턴
Sales Associate
Re/Max Instyle Realty
june@instylerealty.com



1378 Route 206 Suite 202, Skillman, NJ 08558 junefulton@remax.net

퀵 모기지

주/택/웅/자/전/문

다양한 융자상품, 전화상담 환영

Gabriel B Park (NMLS 1161224) Senior Loan Officer

Direct (908) 293-2215

gpark@kwikmtg.com / Licensed NJ NY PA CA FL CT MD VA TX

VESTA·OH

Kitchen & Bath Renovation

부엌, 욕실 전문그룹

오용운 토마스 | m 917-662-8353 | kitchenoh@hotmail.com

은퇴플랜 및 재정설계 컨설팅

Advisors U Trust, LLC

401k, IRA, Annuity (개인연금)
생명보험, 메디케어 & 건강 보험
자동차 주택 건물 비즈니스 보험

박가브리엘 (732) 865-1597
Licensed in NJ & NY advisorustrust@gmail.com

에디슨 현대정비 Hyundai auto repair

종합정비 Auto Repair • Service

김도영 (Philip Kim)
C/P : 732-853-5696
Tel : 732-543-1110
1808 Woodbridge Ave. (Rt.514)
Edison, NJ 08817

메디케어 무료상담
올바른 플랜을 선택할 수 있도록 무료 상담에 드립니다

박미원
Independent Licensed Agent

문의 전화 908 655 5339

이문식
Family Vision Center

Dr. Douglas M. Lee, Optometrist
각종 안질환 치료
백내장 검사 및 녹내장 치료
검안 및 시력 교정
아동 사시 치료 및 시력 교정
콘택트렌즈 및 안경 맞춤

P. 732-393-1210
1734 Lincoln Hwy (Rt.27)
Edison, NJ 08817
에디슨 H-mart 앞

HONORS REVIEW East Brunswick

SAT, ACT, APs, Enrichment Programs
우성현 스테파노 732-254-3349
3 Lexington Ave East Brunswick NJ 08816

ND EAST BRUNSWICK
NEW IMAGE DENTAL LLC

444 Ryders Lane
East Brunswick, NJ 08816
Tel. 732-432-8388

J. Woo D.D.S.

강춘한의의원

진료 안내
한의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통증과
교통사고 후유증
각종 한약(보약, 치료약)
침, 뜸, 부항
중국 전통식 지압

(732)287-8881
1734 Lincoln Highway Rt.27, Edison
에디슨 H-Mart 앞 확장 이전

종합건축 AAMD construction

주택, 상가, 무료 상담 및 견적, 면허, 보험소지
골치 아픈 문제(건축허가, 누수), 비닐 담장, 데크, 마루, 욕실, 주방,
지하실, 상가 리모델 등 건축 전반에 책임사공(기본 1년 보증)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성당 교우 10% DC)
732-964-9787
email: aamdconstruction@yahoo.com

성지순례, 단체관광, 크루즈 전문

가고파여행사

201-802-0820

353 Broad Ave. Suite 203 Leonia, NJ 07605

BOYLAN
Funeral Home

Edison 732-572-0076

HYUNDAI TOYOTA KIA NISSAN
Jeep CHRYSLER

SANSONE
AUTOMALL

BEST CAR, BEST PRICE

90-100 RT.1 Avenel NJ 07001

Manny Kim
201-852-3232

연중 제 17 주일
2020년 7월 26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 - 7:00 PM
수 ~ 금 - 9:00 AM

주 일 (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 - 4:00 PM
일요일 (영어) - 8:00 AM
(영어) - 10:00 AM
(한국어) - 11:30 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 10am~3pm
http://www.edisonkcc.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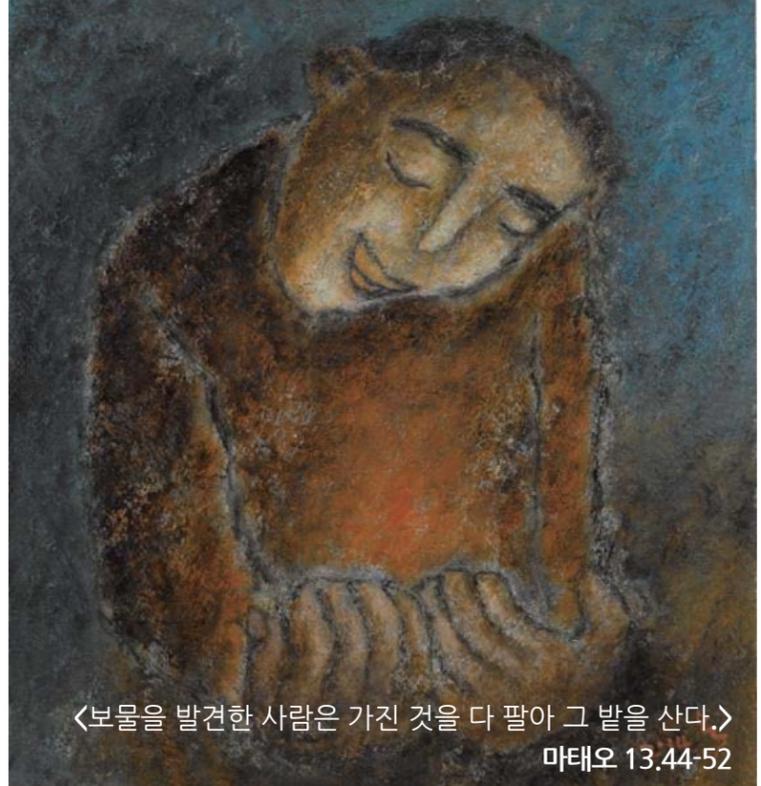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의회장 한상철 빈센시오



에디슨한인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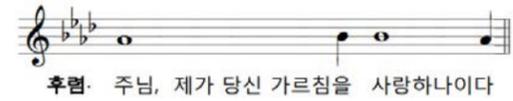
OUR LADY OF MERCY PARISH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마태오 13.44-52

<이번주 전례 안내>

- # 제1독서 열왕기 상권 3,5-6 7.7-12
 - # 화답송 시편 119(118),57과 72.76-77. 127-128.129-130(© 97 참조)
 - # 화답송 시편 119(118),57과 72.76-77. 127-128.129-130(© 97 참조)
 - # 복음 마태오 13,44-52
-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8,28-30
- # 복음환호송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 복음 마태오 13,44-52
-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주간 말씀 전례	제 1독서/제2독서	복음 말씀
월요일 7/27/20	예레미야서 13,1-11	마태오 13,31-35
화요일 7/28/20	예레미야서 14,17-22	마태오 13,36-43
수요일 7/29/20	요한 1서 4,7-16	요한 11,19-27
목요일 7/30/20	예레미야서 18,1-6	마태오 13,47-53
금요일 7/31/20	예레미야서 26,1-9	마태오 13,54-58
토요일 8/01/20	예레미야서 26,11-16.24	마태오 14,1-12
일요일 8/02/20	이사야서 55,1-3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8,35.37-39	마태오 14,13-21

미사지향

연미사 (봉헌자)

- 최규학 (프란치스코), 최혜경 (데레사)
 - 가족, 유근성(시몬) 가족
- 이금순 - 김수완(세실리아)
- 정영옥 (수산나) - 가족
- 김상기 (요셉) - 가족
- 조원봉 (빈첸시오) - 가족
- 장인석 (미카엘) - 가족
- 이화자 (마틸다) - 가족
- 김명자 (헬레나) - 가족
- 김교식 (야고보) - 가족
- 한정숙 (레지나) - 가족

생미사 (봉헌자)

- 윤석로(이냐시오) 부제님의 영명축일 축하 - 카도너 CLC
- 전선희(다니엘라), 전선임(아네스) - 가족
- 유희자(베로니카)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이석중(스테파노) - 썸머셋 구역
- 고안나(안나) - 가족
- 우드브릿지, 피스카타웨이 구역 가정 - 채희백(바오로)
- 최연호(니콜라오) 수술 후 빠른 쾌유 - 김동근(사도요한) 가족
- 실비아 대모님, 베드로 대부님 새 보금자리에 주님의 평화를 빌며 - 김동근(사도요한) 가족

교무금 납부 안내

임문수(7)	성낙순(8-12)	합계: \$300
--------	-----------	-----------

감사 헌금 납부 안내

성낙순/성순영(\$200)	채희백(\$300)	합계: \$500
----------------	------------	-----------

주일 헌금 납부 안내

미사참여 53명	야외영성체 참여 46명	합계: \$902
----------	--------------	-----------

- 주일헌금, 대축일 감사헌금, 2차 헌금, 교무금, 감사헌금 - Payable to OLM

2020 Bishop's Annual Appeal

- 교구청으로부터 받으신 Bishop's Annual Appeal 봉투를 직접 교구청으로 보내시거나 사무실로 전달하시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헌금액은 지속적 복음화와 선교사업, 신학생, 청소년 양성 및 가난하고 소외된 취약계층을 돕는데 사용되며 2020년 본당 할당금액은 \$35,000입니다.
- 7월16일까지 약정된 금액은 \$34,858.49 (99.6%)

공지 사항

코로나 19 바이러스 관련 하여 모든 회의 및 모임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필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은 단체장을 통해 전달해드립니다.

미사 지향 (생미사/연미사) 신청 변경 안내

- 교구청 지침에 의거하여 8월부터 장기간 미사 지향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장기간 미사 지향을 원하시는 분들은 번거롭더라도 매 주 1회씩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사 예물은 미사 한 대에 \$10이며 금요일까지 신청해주시면 후보에 공지가 됩니다. 미사 당일 사무장에게 신청하시는 분들의 경우 신부님께서 미사 중 신청 내용을 말씀해드립니다.
- 문의 : 사무장 (732-258-5998)

매일미사 책 신청 및 배부 안내

- 1년 구독 비용 : \$48 (신청마감 7월 26일까지)
- 구독기간 : 2020년 8월 ~ 2021년 7월
- 구역장님들께서는 구역별로 신청자를 취합하셔서 사무장에게 신청 명단 및 구독 비용을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각 구역장님들을 통해 매일미사책을 배부하오니 신청하신 분들은 구역장님들에게 신청 권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견진성사 신청자 및 2020-21 예비자 모집

-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 견진성사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 또는 예비자 교리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 또는 이서형(요안나) 선교분과장님께 연락바랍니다.

AmazonSmile 안내

- 자세한 사용방법은 홈페이지 Gift란을 참고 바랍니다.
- https://www.edisonkcc.org/donation/

방역작업에 수고해 주시는 대건회와 야외 영성체 진행을 도와주시는 요셉회, 프란치스코회, 야고보회, 청년회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 프란치스코, 하건철 안토니오, 이정우 바오로, 김진철 요한, 오옥순 수산나, 김경희 수산나, 오홍순 카타리나, 유희자 베로니카

성당 교무금 및 헌금 납부 방법

1. 우편으로 납부

분실위험으로 인해 체크만 가능하며, 납부하시는 분의 성함과 교무금, 주일헌금, 특별헌금을 각각 구분하여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Payable to OLM)

2. 현금으로 납부

- 1) 사제관에 개인적으로 오셔서 우편함에 넣어주시거나,
- 2) 구역장님이나 대리인이 수거하여 사제관 우체통에 넣어주실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미리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3) 봉투에는 납부하시는 분의 성함과 위에서 설명드린 납부 목적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Venmo

친구찾기로 "SBB-LEE"찾으시고, 프로필에 성당 사진과 Namwoong Lee 이름 확인하신 후, 납부하시는 세대주 성함과 헌금 종류를 구분해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 사무장(732-258-5998)

4. 야외 영성체

주일 오전 9-10시까지 있는 야외 영성체에 오셔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교무금 및 헌금 납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신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태오 복음 13,44-52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 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 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또 하늘 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이고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 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 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 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 학자는 자기 공간에서 새것도 꺼내고 옛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신앙 칼럼

세례명의 유래와 의미

얼마 전 예비자 수련식이 있었고, 이제 곧 세례식이 있을 예정이다. 예비 신자들의 관심사로 '세례명'을 빼놓을 수 없다. 세례 때 왜 세례명을 받아야 하는지 또 그 유래는 어떻게 되는지 등이 궁금해진다. 세례명에 관한 이모저모를 알아보자.

유래

그리스도교 전통을 지닌 외국의 경우 사람 이름은 대부분 세례명에서 유래하거나 세례명과 같은 기원을 갖고 있다. 사회에서 부르는 이름 따로, 본당에서 부르는 이름 따로인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셈이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의 이름 체계를 살펴봐야 한다. 보통 성이 앞에 오고 이름이 뒤에 오는 동양권과 달리 외국에서는 폴란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름이 앞에 오고 성이 뒤에 온다. 각 나라별로 관습과 전통이 달라 이름 체계가 제각각이지만 대략 앞에 오는 이름을 서양에서는 크리스천 네임 즉 세례명이라고 부른다. 서양인들이 언제부터 세례명을 이름으로 사용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교부 치프리아노(200~258)나 암브로시오(339~397) 등의 기록에 따르면 3세기 중엽 이후에 태어난 아이에게 성서에 나오는 이름이나 성인, 순교자들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관례였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암브로시오는 신자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짓는 것을 꾸짖고 교회에서 공경하는 이들의 이름을 따서 짓거나 순교자들이나 성인들의 이름을 따서 짓도록 권고했다. 4세기 이후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로 자리를 잡게 되자 이런 현상은 더욱 확산된다. 이후 세례명의 정착과 확산에 결정적 기여를 한것은 비엔느 공의회(1311~1312)다. 비엔느 공의회는 유아 세례를 합법적인 것으로 선언하고, 세례성사 때에 세례명을 짓는 것을 공식적으로 정착시켰다. 이는 교회법 규정으로 이어졌는데, 구 교회법 761 조에는 본당 사목자가 신자들에게 자녀들의 세례명으로 반드시 성인들의 이름을 지어 주도록 권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의미

누구나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이름을 받는다. 세례명도 마찬가지, 영적 생명으로 새로 태어나는 만큼 새로운 이름을 받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세례명은 세례명이 지시하는 그리스도교적 이상을 실천하며 더욱 그리스도교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데 그 본질적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자신의 세례명이 지니는 종교적 중요성에 유의하여, 일생 동안 세례명 성인을 자신의 수호성인으로 특별히 공경하고 그 품행과 성덕을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세례명을 정하려는 예비신자들 역시 이런 점을 충분히 유념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세례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자신이 세례명으로 정하려는 성인의 생애나 그 세례명의 뜻 등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들이나 교리교사, 본당사목자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세례명을 정하는 것과 관련, 현행 교회법은 "부모와 대부모 및 본당사목구 주임은 그리스도교적 감정이 어울리지 아니하는 이름을 붙이지 아니하도록 보살펴야한다."(855조)로 규정하고 있다.

출처: <http://m.cpbk.co.kr/paper/view.php?cid=175096&path=200303>

복음 묵상 나눔

말씀 안에 드러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눕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다가 오셨는지,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나눕니다.

1. "하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 (마르13,44) 입니다. 신앙생활은 보물을 찾는 여정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발견한 하늘나라를 묵상하고 나누어 봅시다. (삶 가운데 하느님께서 함께 계심을 체현한 것 등)

2. 위의 질문에 이어서,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으로서 값진 진주를 사는데 (마르 13,45 참조)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3.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총은 무엇일까요?



다음, 네이버 검색창에서 사진을 찍으시면 출처로 바로 연결됩니다.